

2/26(토) 신명기 29-31장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8장에는 순종의 복이 가득 담겼습니다(28:1-14).

자자손손 간절히 중보하며 빌어주고픈 각양의 복들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저주가 4배 이상 많습니다(28:15-68).

읽을수록 뒷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또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인가? 28,29장>

신명기 안에서만도 너무 자주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당부하고 또 당부하던 모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순종과 저주의 내용을 찬찬히 살피며 통독해 보십시오.

앞으로 성경을 읽으며 확인해 나갈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결국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며,

시내산 언약을 잊고 모압에서의 갱신도 어길 것입니다(31:16-18,20).

불순종에 따른 저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 자연 재해, 전쟁의 패배와 적군의 모욕,

압제와 노략, 겁탈, 황폐한 땅, 노략과 탈취, 학대,

멸망과 포로생활, 궁핍과 빈곤, 불안함, 무정함.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갈 사람들,

자손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보전할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의무를 준수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생명과 복으로 지키실 것입니다(30장, 31:3-13,23).

이해하거나 행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30:11-14).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30:15)”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❶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하거나 행하기 어렵습니까?

❷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기도 + 통독 신명기 29-31장